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어 양상동사(modality verb)의 한국어 번역유형에 관한 연구



2014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제 경 미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어 양상동사(modality verb)의 한국어 번역유형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제 경 미

제경미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21일



주 심 언어학박사 한 지 원 (인)

위 원 언어학박사 John Stonham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목 차

Abstract	iv
I . 서 론	1
II .양상 동사(modality verb)	4
2.1 양상동사의 정의	4
2.2 양상동사의 분류	6
2.2.1 Givón의 분류	6
2.2.2 Dixon의 분류	7
III . 양상동사의 종류별 번역양상	9
3.1 양상동사의 번역유형	13
3.2 양상동사의 종류별 번역	13
3.2.1 WANTING 유형	19
3.2.2 BEGINNING 유형	22
3.2.3 TRYING 유형	30
3.2.4 DECIDING 유형	34
3.2.5 LIKING 유형	37

3.2.6 기타	39
IV. 결론	44
병렬언어자료	46
참고문헌	46



표 목차

〈표1〉 Dixon의 양상동사 분류	7
〈표2〉 영어 양상동사의 번역 유형 및 빈도	11
〈표3〉 WANTING 유형 동사의 번역 유형 및 빈도	13
〈표4〉 want의 목적어 번역 유형 및 빈도	15
〈표5〉 BEGINNING 유형 동사의 번역 유형 및 빈도	22
〈표6〉 TRYING 유형 동사의 번역 유형 및 빈도	30

그림 목차

〈그림1〉 stop의 부호화	29
-----------------------	----

A Study on Korean Translation Patterns
of English Modality Verb

Kyungmi J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tterns of Korean translation of the English modality verb. For this, 160 constructions that is from one popular novel were used to study how to translate English to Korean in the translation.

According to translating the patterns of English modality verbs, they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translating into a verb', 'translating into a noun', 'translating into an adverb', 'not translated'. Among them, 'verb pattern' was the most frequent pattern.

Moreover, according to Dixon's classification, there were five translation patterns: 'WANTING', 'BEGINNING', 'DECIDING', 'TRYING', 'LIKING'. These five patterns could be subdivided according to the form and features of translation.

Although there were a lot of modality verbs, three interesting results were found. First, the ‘continue’ of modality verb was translated not as an adverb but a noun. Second, the ‘want’ of modality verb was translated with connective endings like ‘- go’ , ‘- ro’ . Third, the ‘need’ of modality verb was translated into two different meanings whether the translation of the subject is required or not.



I . 서론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본질적인 주어와 동사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영어문장에서 역시 주어와 동사는 하나이나, 양상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그 주절의 주어는 보문절의 주어와 동일 지시대상(co-referent)이 된다(Givón 1993).

(1) a. She decided to fly to Vietnam. (Reader's Digest, p.40)

b. I just start to cry. (TM, p.50)

예문 (1a)를 보면 동사 *decide*의 주어는 *She*이며, *fly*의 주어 역시 *She*이다. 예문 (1b)에서도 역시 동사 *start*의 주어는 *I*이며, *cry*의 주어도 *I*로 문장에서 동사가 2개이면서 주어가 같은 경우, *decide*나 *start*를 양상동사라 한다.

이러한 영어의 양상동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동사를 항상 그대로 번역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한 동사만을 나타내면 되는지 등의 의문이 생긴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2) a. I want to tell you about my life. (TM, p.63)

b. 난 자네에게 내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p.105)

(3) a. She continued working at MIT, as Morrie wished. (TM, p.100)

b. 그녀는 교수님의 바람대로 계속 MIT 대학에서 근무했다. (모리

와 함께한 화요일, p.150)

(4) a. They began running down the driveway. (Reader's Digest, p.56)

b. 두 사람은 자동차 통로로 달려 내려갔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57)

예문 (2)에서 tell은 ‘이야기하다’로 번역되었으며 begin은 ‘-고 싶다’로 번역되어 전형적인 양상동사의 번역문이다. 하지만 예문 (3)에서 work는 ‘근무하다’로 번역되었으나 양상동사 *continue*는 동사 ‘계속하다’로 번역되지 않고 부사인 ‘계속’으로 번역되었으며, 예문 (4)에서는 weep는 ‘울음을 터뜨리다’로 번역되었으나 양상동사인 *begin*은 번역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양상동사가 항상 동사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번역이 되는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 양상동사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어떠한 번역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상동사가 동사로 번역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에 따른 다양한 번역양상과 빈도를 조사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영한 병렬 언어자료로는 Albom(1997)의 *Tuesdays with Morrie an old man, a young man, and life's greatest lesson* (이하 TM로 약함)과 그 번역본 공경희 역 (2010)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과 *Reader's Digest*(2009)와 「영한 대역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자료로 삼아 영어 양상동사가 한국어 언어자료에서 동사의 종류 별 어떠한 번역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겠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 양상 동사의 의미적 특징과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고, 학자들에 따른 양상동사의 분류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조사한 예문을 바탕으로 2장에서 분류된 영어 양상동사의 종류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될 때 어떠한 번역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앞 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한다.



Ⅱ. 양상동사(modality verb)

본 장에서는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인 양상 동사의 의미적 특징과 통사적 특징에 대해 살펴 본 다음, 2.2에서는 Givón과 Dixon의 두 학자의 분류를 살펴본다.

2.1 양상동사의 정의

Givón(1993)은 양상동사를 동사보문(verbal complement)¹⁾의 한 종류로서 부류는 양상 조동사²⁾와 유사하며, 보어화 척도의 윗부분에 걸쳐 있다고 하였다. 두 부류의 유사점은 의미적인 것과 통사론적인 것 두 가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양상 동사의 의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5) 양상동사의 의미적 특징

- 1) Givón(1993)에 의하면 영어에서 타동사와 형용사를 포함한 많은 술어 형태는 그 주어로서 명제(proposition)을 취할 수 있다. 그 주어는 완전한 절로서 나타날 수 있는데, 동사 앞의 주어위치에 나타나거나 동사 뒤의 목적어위치 즉, 동사보문(verbal complement)으로 나타난다. 동사보문 동사는 다음 3가지의 주요한 부류로 구분된다.
 - i) 양상동사(want, begin, finish, try등)
 - ii) 조종동사(make, tell, order, ask등)
 - iii) 지각-인지-발화동사(P-C-U동사; see, know, think, say등)조종동사와 지각-인지-발화동사의 특징은 Givón(1993)을 참조하기 바람.
- 2) 양상 조동사(modal auxiliary)는 행위로서의 언어 즉 화자나 다른 사람이 수행할 가능 행위에 대한 화자 자신의 태도의 표현과 관련되며 한 가지 이상의 비 실현 하위양상을 부호화한다. 또한, 가능의 의미를 갖는 *can*과 *may*, 필연의 의미를 나타내는 *must*, 그리고 미래 예측의 *will* 등은 인식적 양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허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may*와 *can*, 의무의 *must* 등은 의무적 양상에 포함시켜 양상동사의 의미적 차이를 보인다. 통사적으로는 양상 조동사는 양상동사처럼 행동한다.

- a. 보문절은 의미적으로 상태나 사건을 부호화한 하나의 명제 이다.
- b. 주절의 주어는 보문절의 주어와 동일 지시대상(co-referent)이다.
- c. 주동사는 행위를 수행하거나 보문절에서 묘사된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주어에 의한 발단, 종결, 지속, 성공, 실패, 시도, 의도, 의무 또는 능력을 부호화한다.

통사적으로, 양상동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6) 양상동사의 통사적 특징

- a. 보문절의 동일지시 주어는 표현되지 않는다.
- b. 보문절의 동사는 시제, 상, 양상 또는 동사일치의 형태소가 나타나지 않는 부정형(infinitive) 또는 명사형(nominal)으로 나타난다.
- c. 보문절은 동사 뒤 직접 목적어의 위치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보통 주절과 함께 동일 억양곡선아래에 놓여진다.

예문 (7)의 전형적인 양상동사의 예로 살펴보자.

(7) John wanted to leave.

위의 예문(7)에서 양상동사는 다른 동사보문과 달리 *want*의 주어가 *John*이고 *leave*의 주어 역시 *John*으로 동사는 2개인데 주어가 같은 경우로 이는 (5b)의 특징처럼 주절의 주어 *John*은 보문절의 주어와 동일하

게 사용되었다.

2.2 양상동사의 분류

양상동사의 번역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양상동사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한 Givón(1993)과 Dixon(2005)의 분류를 먼저 살펴보자.

2.2.1. Givón의 분류

양상동사는 많은 하위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여기서의 의미적 차이는 보문에서 부호화된 상태나 사건에 대한 주절 주어의 태도(attitude)를 포함한다. 첫 번째로, 의도성(intentional)으로 의도성(volition), 시도(attempt) 또는 능력(ability)을 부호화한다. 이 부류에 속한 전형적인 동사는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다.

- (8) a. She wanted to leave.
b. Mary tried to see Joe.

이 하류부류의 다른 동사에는 *intent*, *plan*, *decide*, *agree*, *strive*, *think of*, *be able to* 등이 있다.

양상동사의 두 번째 하위그룹은 행위의 성공(success) 또는 완수(accomplishment)를 부호화한다. 아래의 예문으로 전형적인 동사를 살펴보자.

- (9) a. Mary managed to escape.
 b. John remembered to pick up the laundry.
 c. She succeeded in reversing the verdict.

양상동사의 세 번째 하위 부류는, 발단(inception), 종결(termination), 반복(repetition), 또는 계속(continuation) 등과 같은 보문 사건의 다양한 상의 특성(aspectual properties)을 부호화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10) a. Mary started to move out.
 b. John finished washing the dishes.
 c. He begin to understand.
 d. She continued to pursue her plan.
 e. He stopped loving her.
 f. Joe kept insisting.

2.2.2. Dixon의 분류

Dixon(2005)의 양상동사 유형별 분류를 아래 <표1>로 살펴보자.

<표1> Dixon의 양상동사 분류

분류	양상동사
BEGINNING	begin, start, commence, continue, keep, go on, finish, cease, stop, complete, discontinue
TRYING	try, attempt, succeed, manage, miss, fail

	practice, repeat
WANTING	want, wish, desire, crave, long, pine, hope demand, need, require, deserve, intend, plan aim, prepare, pretend
LIKING	like, love, hate, prefer, fear, dread, dislike, loathe, admire, value, regret, mind, enjoy, favour, object to, approve of, worship, fall for

Dixon(2005)은 먼저 살펴본 Givón의 세 번째 분류인 발단, 종결, 반복, 또는 계속과 비슷한 BEGINNING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첫 번째 분류인 의도성, 시도 또는 능력과 비슷한 TRYING 유형, WANTING 유형으로 분류하고 마지막으로 LIKING 유형과 기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ECIDING 유형에 하위분류로 *decide, determine* 동사를 추가하여 살펴보며, 최근 분류한 Dixon의 분류에 따라 양상동사의 번역양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Ⅲ. 양상동사의 종류별 번역양상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Dixon의 양상 동사의 분류를 바탕으로 각 동사가 어떤 번역양상이 나타나며 그 특징에 대해 분석해본다. 먼저 3.1에서는 양상동사의 번역 유형 및 빈도를 살펴보고, 3.2에서는 번역 유형에 따라 각 동사별로 어떤 세부 번역 양상을 보이는지,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3.1 양상동사의 번역유형

양상동사 예문 160개를 찾아 분석한 결과 크게 네 가지의 번역 유형을 보였다. 양상동사가 ‘동사 그자체로 번역되는 경우’와 ‘명사로 번역되는 경우’, ‘부사로 번역되는 경우’ 그리고 ‘생략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지금부터 이 네 가지 유형을 순서대로 동사 유형, 명사 유형, 부사 유형, 생략 유형이라 하겠다.

첫째, 예문 (11)은 양상동사가 동사로 번역된 가장 전형적인 번역 유형이다.

(11) a. And I wanted to remember it for as long as I could. (TM, p.64)

b. 그리고 되도록이면 오래오래 그것을 기억하고 싶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p.107)

예문 (11a)의 양상동사 *want*는 한국어 언어자료에서 예문 (11b)와 같이

한국어 동사 ‘싶다’ 로 번역되어 나타났다.

둘째, 예문 (12)는 양상동사가 명사로 번역되어 나타난 경우이다.

- (12) a. Now I need to detach from that emotion for a moment. (TM, p.104)
b. 그렇다면 이제 잠시 그 감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p.156)

예문 (12)에서 양상동사 *need*가 명사인 ‘필요’ 로 명사 유형으로 번역되었으며, (12b)에서 보면 명사 ‘필요’ 와 동사 ‘있다’ 가 합쳐서 ‘필요가 있다’ 로 번역되었다.

셋째, 예문 (13)은 양상동사가 부사로 번역된 경우이다.

- (13) a. Anna was scared, but wouldn't let them see this. She continued walking and made no reply. (Reader's Digest, p.108)
b. 안나는 겁이 났지만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고 계속 걸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109)

예문 (13)에서 양상동사 *continue*가 동사 ‘계속하다’ 가 아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인 ‘계속’ 으로 번역되었다.

넷째, 다음 예문 (14)은 양상동사가 번역되지 않고 생략되어 나타난

경우이다.

(14) a. We begin to talk seriously sometimes, after class, when the room has emptied. (TM, p.39)

b.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이 텅 비면 우리는 가끔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p.75)

예문 (14)에서 양상동사 *begin* 뒤에 오는 부정사형 동사인 *talk*는 (14b)에서 ‘대화를 나누다’로 번역되었지만, 양상동사 *begin*은 문장 어디에도 번역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양상동사 예문 160개를 분석한 결과, 양상동사의 영한 번역 유형을 정리한 내용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영어 양상동사의 번역유형 및 빈도

번역 유형	동사	명사	부사	생략	합계
양상동사	124(77.5%)	9(5.6%)	4(2.5%)	23(14.4%)	160(100%)

양상동사 160개의 한국어 번역문 중 예문 (11)과 같이 양상동사가 동사 그자체로 번역되는 동사유형의 경우는 124개(77.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예문 (12)처럼 양상동사가 동사가 아닌 명사로 번역되는 명사유형의 경우는 9개(5.6%)로 나타났으며, 예문 (13)처럼 부사유형으로 나타난 경우는 4개(2.5%), 그리고 생략 유형으로 나타난 경우는 23개(14.4%)의 빈도를 보였다.

또한, 160개의 영어번역문에서 양상동사의 분류에 따라 분석한 결과,

WANTING 유형이 65개(40.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BEGINNING 유형은 47개(29.4%), TRYING 유형은 23개(14.4%), DECIDING 동사는 9개(5.6%), LIKING동사는 6개(3.75%) 나타났으며, 기타 유형의 동사는 10개(6.25%)가 나타났다.

이렇게 발견된 양상동사의 유형별 빈도수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WANTING 유형부터 각 동사들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3.2 양상동사의 종류별 번역

이 절에서는 앞의 3.1에서 살펴보았던 양상동사를 그에 상응하는 문장을 한국어 언어자료에서 찾아 양상동사의 종류에 따른 번역유형을 살펴보고, 각 동사별로 어떠한 번역 유형을 보이는지 분석해 본다.

3.2.1 WANTING 유형

영어 언어자료에서 발견된 160개의 양상 동사 문장 중에서 WANTING 유형은 64개가 발견되었으며, 그 중에서 *want*가 47개(73.4%)로 제일 많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 *need*는 14개(21.9%)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hope*와 *plan*은 각각 2개(3.1%)와 1개(1.6%)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WANTING 유형에서 발견된 양상동사들의 번역 유형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WANTING 유형 동사의 번역 유형 및 빈도

WANTING 유형	번역 유형	빈도
want	동사	45(70.3%)
	생략	2(3.1%)
need	동사	8(12.5%)
	명사	6(9.4%)
hope	동사	2(3.1%)
plan	동사	1(1.6%)
합계		64(100%)

WANTING 유형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양상동사 *want*는 한국어 번역문에서 동사 유형으로 45개(70.3%)와 생략 유형으로 2개(3.1%)로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났으며, *need* 역시 동사 유형 8개(12.5%)와 명사 유형 6개(9.4%)로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그리고 *hope*는 2개(3.1%)가 동사 유형으로, *plan* 역시 1개(1.6%)가 동사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제 WANTING 유형에서 빈도가 높은 *want*부터 각 동사들의 번역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특징들을 예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A. want

WANTING 유형의 전체 64개중 *want*는 영어 언어자료에서 47개(73.4%)로 가장 많이 발견 되었으며, *want*의 한국어 번역문에서의 번역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의 예문 (15)의 경우처럼 동사 유형으로 45개(70.3%) 와 예문 (16)과 같이 생략 유형으로 2개(3.1%)로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났다.

(15) a. I'm not sure if I want to get married because I don't want to make another mistake. (Reader's Digest, p120)

b. 내가 결혼을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는 않거든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p.121)

(16) a. "Are you sure you want to do this?" Lask asked. (Reader's Digest, p.22)

b.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래스크 박사가 물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23)

예문 (15)에서 양상동사 *want*는 한국어로 번역시 동사 ‘원하다’로 번역되어 동사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예문 (16)에서는 *want*가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문장 내에서 동사든 명사든 어느 품사로도 번역되지 않은, 즉, 생략 유형으로 나타났다.

양상동사 *want*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앞의 예문 (15)와 같이 동사 유형으로 번역된 경우 목적어자리에 온 동사는 <표4>와 같이 번역되는 유형을 볼 수 있다.

<표4> want의 목적어 번역 유형 및 빈도

번역 양상	연결어미	명사화	합계
빈도	42(93.3%)	3(6.7%)	45(100%)

한국어 번역시 연결어미 ‘-고’가 붙어 번역되는 경우는 42개(93.3%)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동사가 명사로 바뀐 명사화³⁾(*nominalization*)되어 번역된 경우는 3개(6.7%)가 나타났다.

A-1. 연결어미

양상동사 *want*의 목적어 동사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연결어미 ‘-고’가 붙어 번역된 경우, 양상동사 *want*는 아래 예문 (17)에서처럼 ‘-고 싶다’로 번역되었으며, 양상동사가 동사 유형으로 번역되는 전체 42개 중 39개(92.9%)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3) Givón(1993)에서 어휘적 명사화를 동사나 형용사가 명사로 전환되는 과정이라 정의한다.

- (17) a. “Al, look at him. He want to swim, but he’s freezing.”
 Brandon just stood there, the water lapping at his knees.
 (Reader’s Digest, p.12)
- b. 여보, 재 좀 봐요. 수영하고 싶어하는데 얼어 죽겠어요. 브랜
 든은 무릎 깊이의 물속에 그냥 서 있었다. (리더스 다이제스
 트, p.13)

예문 (17)에서와 같이 *swim*이 한국어 번역시 동사 ‘수영하다’에서 연
 결어미 ‘-고’가 붙어서 번역되면, 양상동사 *want*는 ‘-고 싶다’로
 동사 유형으로 번역된다. 흥미롭게도, 양상동사 *want*의 목적어 동사에
 연결어미가 붙어 번역된 경우, 아래 예문 (18)와 (19)와 같이 양상동사
*want*가 ‘-하다’와 ‘작정하다’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18) a. In direct contrast to many who have gotten rich quick on
 the stock exchange, he wants to keep his personal affairs to
 himself. (Reader’s Digest, p.80)
- b. 주식 투자로 벼락부자가 된 많은 사람들과는 극히 대조적으
 로 그는 자신의 사적인 문제들은 스스로 처리하려고 한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81)
- (19) a. He wanted to be a doctor after watching his mother die of
 melanoma when he was only eight. (Reader’s Digest, p.90)
- b. 그는 불과 8살 때 어머니가 흑색종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의사가 되기로 작정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91)

예문 (18)에서 *keep*은 ‘처리하다’에 연결어미 ‘-고’가 붙어 번역되고, *want*는 ‘-하다’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화자가 사적인 문제를 이루고자하는 의지가 아닌 문제를 처리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내포된 것 같다. 그리고 예문 (19)에서는 *be*가 동사 ‘되다’가 아닌 명사 ‘되기’로 명사화 되어 번역되고, *want*는 일을 결정하다는 의미인 ‘작정하다’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화자가 의사가 되기로 작정하다는 말 속에 화자의 의지가 암시되어 있으므로, *want*를 ‘작정하다’로 번역한 것 같다.

A-2. 명사화

두 번째로, 양상동사 *want*가 동사 유형으로 번역되는 경우 중에, 목적어 동사가 한국어 번역시 동사가 아닌 명사화 되어 번역되는 경우 3개 (7.1%)로 아래 예문 (20)에서 볼 수 있다.

- (20) a. He wanted to die, but Al and Marie told him. (Reader's Digest, p.26)
b. 그는 죽기를 원했다. 하지만 엘과 마리는 이렇게 말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27)

예문 (20)에서 양상동사 *want*는 동사 유형이 ‘원하다’로 번역되었으나, 목적어 동사인 *die*는 ‘죽다’가 아닌 ‘죽기’로 명사화되어 번역되었다. 그렇다면, 위의 예문 (20b)를 연결어미 ‘-고’를 붙인 ‘죽고 싶다’로 혹시 교체해서 번역 가능한지 궁금하여, ‘싶다’와 ‘원하다’의 의미적 차이를 국어대사전(2005)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싶다’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화자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으나, ‘원하다’는 무엇을 바라고 청하다 는 의미로 ‘죽기를 원하

다’ 처럼 화자의 의지보다는 간청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어 한국어 번역문에서 ‘싶다’와 ‘원하다’는 서로 교체가 불가능하였다.

B. need

WANTING 유형의 전체 65개 중에서 *need*는 14개(21.5%)가 발견되었으며, 아래 예문 (21)처럼 양상동사 *need*는 동사 유형으로 번역되는 경우 8개(12.5%)와 예문 (22)처럼 명사 유형으로 번역되는 경우 6개(9.4%)로 두 가지 경우가 발견되었다. 다음 예문으로 살펴보자.

- (21) a. Ted, I need to check you out before I agree to do this interview. (TM, p.19)
b. 테드, 이 인터뷰를 승낙하기 전에 먼저 당신부터 검토해야겠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p.52)
- (22) a. When the pulse oximeter's beep quickened, the paramedic would need to calm him. (Reader's Digest, p.24)
b. 따라서 맥박탐지기의 뽁뽁 소리가 빨라지면 그는 환자를 진정 시킬 필요가 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25)

예문 (21)에서 양상동사 *need*는 동사인 ‘해야 한다’로 동사 유형으로 번역되었으며, 예문 (22)에서는 *need*가 ‘필요가 있다’로 ‘필요’라는 명사에 ‘있다’라는 동사가 결합되어 명사유형으로 번역되었다.

양상동사 *need*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예문 (21)과 같이 동사 유형으로 번역된 경우 목적어자리에 온 동사는 명사 유형으로 또는 생략 유형으

로 번역되었다. 먼저 명사 유형부터 살펴보자.

B-1. 명사

양상동사 *need*의 목적어 동사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아래 예문 (23)과 같이 동사가 아닌 명사로 번역된 경우는, 양상동사 *need*가 동사 유형으로 번역되는 전체 8개 중에서 7개(87.5%)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 (23) a. “It’s not just other people we need to forgive, Mitch,” he finally whispered. We also need to forgive ourselves.” (TM, p.166)
- b.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타인만이 아니라네. 미치, 우린 자신도 용서해야 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p.231)

예문 (23)에서 양상동사 *need*는 ‘해야 한다’로 번역되었으나, 목적어 *forgive*는 동사가 아닌 명사인 ‘용서’로 번역되었다.

B-2. 생략

두 번째로, 양상동사 *need*가 동사 유형으로 번역된 경우 중에, 목적어가 한국어 번역시 동사가 아닌 생략되어 나타난 경우는 1개(12.5%)로 아래 예문 (24)에서 볼 수 있다.

- (24) a. You don’t need to have a big talent. (TM, p.127)
- b. 대단한 재능 따위는 필요 없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p.183)

예문 (24)에서 양상동사 *need*는 동사 유형으로 ‘필요하다’로 번역되었

으나 목적어 *have*는 문장에서 아무런 번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예문 (23)과 (24)를 통해 번역의 차이점을 살펴 본 결과 목적어의 번역 유형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른 점을 발견하였다. 예문 (23)에서는 *we*라는 주어인 행위자(*agent*)⁴⁾가 ‘우리’로 번역되었으나, (24)에서는 문장의 전체 주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정리해보면, 문장에서 주어를 나타낼 경우는 *need*를 ‘해야 한다’로 번역하고, 문장에서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필요하다’로 번역되었다.

C. hope

WANTING 유형 중에 *hope*는 동사 유형으로만 번역되었으며, 전체 64개 중에서 2개(3.1%)가 발견되었다. 아래 예문을 통해 동사 유형으로 번역될 경우 목적어 자리에 오는 동사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5) a. By reseeded, scientists like Smith hope to repair damaged sections of reef. (Reader's Digest, p96)

b. 스미스 같은 과학자들은 다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방법으로 손상된 산호초를 복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97)

(26) a. “In the next decade we hope to have a steady supply of chemicals from coral reef creatures for testing in drugs for cancer, aids and other diseases,” Murphy says. (Reader's

4) Givón(1993)은 능동문에서 주어자리로 접근이 용이한 참여자는 행위자, 여격(dative), 수혜자격(benefactive), 피동작주와 그 외 참여자의 순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명사구위계들과 관련된 논의는 Givón(1976), Foley와 Van Valin(1985)과 Yamamoto(1999)를 참조하기 바람.

Digest, p96)

- b. “10년 안에 산호초에 서식하는 각종 생물로부터 암과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환의 치료제 검출용 화학물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피는 말한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97)

예문(25)에서 양상동사 *hope*는 ‘바라다’로 동사 유형으로 번역되었으나, 목적어 *repair*은 ‘복원할 수 있게 되기’로 번역되었다. *repair*은 영어에서는 능동이지만 한국어 번역시 그 자체가 수동으로 변해서 명사 형태로 번역되었다. (25b)에서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것은 한국어에서는 행위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을 ‘되다’ 구문을 사용하기 때문이다(김은일 2010). 예문 (26)에서 역시 양상동사 *hope*는 ‘기대하다’로 동사 유형으로 번역되었으나 *have*는 ‘되기’로 번역되었다.

두 번역 양상이 교체 가능한지 살펴본 결과, 국어대사전(2005)에서 ‘기대하다’는 한자어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다로 정의하였으며, ‘바라다’는 순수한 한국어로 생각대로 또는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다 의미로 두 단어는 문체는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바라다’와 ‘기대하다’는 서로 교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 plan

WANTING 유형 중 마지막으로 *plan*은 한국어 번역문에서 동사 유형으로 전체 64개 중 1개(1.6%)가 발견되었는데,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27) a. She planned to slide it open a crack, then shove Benito in.

(Reader's Digest, p.40)

- b. 그 문을 약간 열어서 베니토를 밀어 넣을 계획이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41)

예문 (27)에서 양상 동사 *plan*은 동사 ‘계획이다’로 번역되었으며, 목적어 동사 *slide*는 ‘밀어 넣다’로 전형적인 양상동사의 번역 유형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BEGINNING 유형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자.

3.2.2 BEGINNING 유형

양상 동사 예문 160개 중에서 BEGINNING 유형은 47개(29.4%)가 발견되었다.

영어 언어자료에서 발견된 BEGINNING 유형 47개 중에서 *begin/start*가 38개(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continue*는 5개(11%), *stop/quit*는 4개(8%)의 빈도가 보였다.

BEGINNING 유형에서 발견된 양상 동사들의 번역 유형을 정리한 것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BEGINNING 유형 동사의 번역 유형 및 빈도

BEGINNING	번역 유형	빈도
begin/start	동사	28(59.6%)
	생략	10(21.3%)
continue	부사	3(6.4%)
	동사	1(2.1%)

	생략	1(2.1%)
stop/quit	동사	4(8.5%)
합계		47(100%)

BEGINNING 유형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양상동사는 *begin/start*⁵⁾로 한국어 번역문에서 동사 유형으로 28개(59.6%)와 생략 유형으로 10개(21.3%)로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났으며, *continue*는 부사 유형 3개(6.4%), 동사 유형 1개(2.1%)와 생략 유형 1개(2.1%)로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그리고 *stop/quit*⁶⁾의 경우는 4개(8.5%) 모두 동사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제 BEGINNING 유형에서 빈도가 높은 *begin/start*부터 각 동사의 번역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자.

A. *begin/ start*

BEGINNING 유형 중 38개(81%)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begin/start*는 한국어 번역문에서의 번역 유형을 보면 예문 (28)처럼 동사 유형으로 28개(59.6%)가, 예문 (29)의 경우처럼 생략 유형으로 10개(21.3%)로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났다.

(28) a. We begin to notice the smallest sounds. (TM, p.94)

b. 아주 작은 소리마저도 감지되기 시작한다. (모리와 함께한 화

5) 양상동사 *begin*과 *start*의 번역 유형을 분석한 결과 동사 유형과 생략유형으로 똑같이 나와서 두 동사를 묶어서 *begin/start*로 하겠다.

6) 양상동사 *stop*과 *quit*역시 번역 유형 분석결과 동사 유형으로만 나타나서 두 동사를 *stop/quit*로 하겠다.

요일, p.41)

(29) a. We begin to talk seriously sometimes, after class, when the room has emptied. (TM, p.39)

b.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이 텅 비면 우리는 가끔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p.75)

예문 (28)에서 양상동사 *begin*은 ‘시작하다’로 동사 유형으로 번역되었으나 *begin*의 목적어는 동사인 ‘감지되다’가 아닌 명사 ‘감지되기’로 명사화 되어 번역되었다. 예문 (29)에서는 *begin*의 목적어 *talk*는 명사 ‘대화’와 동사 ‘나누다’가 합쳐져 ‘대화를 나누다’로 번역되었으나 양상동사 *begin*은 한국어 번역문에서 생략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begin*이 한국어 번역문에서 번역되지 않았으나 문맥상으로 다른 문법 형태소가 추가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에 따른 예문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30) a. He began to cough while eating, and chewing was a chore. (TM, p.50)

b. 그는 식사 도중 끊임없이 기침을 해댔고 음식 씹는 것을 몹시 힘들어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p.75)

예문 (30)에서 *begin*은 생략되었지만,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그 행동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말인 ‘-대다’라는 문법 형태소를 추가하여 기침이 지속되었다는 의미로 지속의 의미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begin*과 *start*가 ‘시작하다’로 동사 유형으로 번역 되는 경우 두 동사의 차이점⁷⁾을 다음 예문을 통해 잠시 살펴보자.

- (31) a. Frightened, Charlie threw down his wallet and began to run.
(TM, p.139)
b. 겁에 질린 찰리는 지갑을 던져 주고 뛰기 시작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p.197)

- (32) a. Then a few years ago I started feeling tired and old.
(Reader's Digest, p.112)
b.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몸이 피로하고 둔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113)

예문 (31b)에서 ‘뛰기 시작했다’ 처럼 지속성이 낮게 시작하는 경우는 *begin*을 사용하며, 예문 (32)의 ‘몇 년 전부터 느낌이 들기 시작하다’ 처럼 일정기간 지속되어 시작하는 경우 *start*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위의 두 예문을 통해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begin*이나 *start*는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 형태를 취하든 동명사 형태를 취하든 한국어 번역시 명사화 되어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다.

7) *begin*과 *start*의 의미적 특성의 차이를 연구한 Freed(1979)과 코퍼스를 기반으로 의미와 연어 비교한 심지영(2011)에 따르면, 첫째, *start*는 *begin*과 달리 사역적(*causative*)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start*와 *begin*, 두 어휘 간에는 목적어 유형에 차이로 보면, 시간적으로 한정되는(*temporally bound*) 명사의 경우는 *begin*을 시간적으로 한정되지 않는(*temporally unbound*) 명사의 경우는 *start*만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Freed(1979)와 심지영(2011)을 참조바람.

B. continue

두 번째, BEGINNING 유형에서 양상 동사 *continue*는 전체 47개 중에서 부사 유형이 3개(6.4%), 동사 유형이 1개(2.1%) 그리고 생략 유형 1개(2.1%)로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났다. 다음 예문을 통해 번역 양상을 살펴 보자.

- (33) a. The Keskinens say they will continue to pay their debt of honour for as long as there are veterans alive. (Reader's Digest, p.94)
- b. 케스키넨 집안은 참전용사들이 살아 있는 한 계속 그들에게 진 도의적 빚을 갚아나갈 것이라고 한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95)
- (34) a. She continued to skate, headlining the Ice Capades for eight years. (Reader's Digest, p.108)
- b. 그리고 8년 동안 아이스 커페이즈(아이스쇼 공연단)의 주역 노릇을 하는 등 스케이팅을 계속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109)

예문 (33)에서 양상동사 *continue*가 동사인 ‘계속하다’로 번역되지 않고 부사 ‘계속’으로 번역되는 흥미로운 번역 양상을 볼 수 있으며, 예문 (34)에서는 *continue*가 동사 ‘계속하다’로 번역되었는데, 보통 *skate*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스케이트 하다’로 번역해야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스케이트 하다’라는 동사가 없다. 즉, *skate*가 영어에서는 동사지만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34b)에서와 같이

‘스케이팅을 계속하다’로 번역되었다. 예문 (33)와 (34)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어에서 ‘값다’라는 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continue*가 ‘계속’이라는 부사로 옮겨지는 반면에 *skate*처럼 한국어에서 동사가 없는 경우 *continue*는 ‘계속하다’로 번역된다.

(35) a. Considering those who are reluctant to report it, we can be sure that this number is higher and will continue to rise sharply. (Reader's Digest, p.62)

b.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의 폭력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감안하면 한국인 남편의 폭력 수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며 그런 추세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하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62)

예문 (35)에서 *rise*는 ‘급증하다’로 번역되었고, *continue*는 계속하다로 번역되지 않고 생략 유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5b)에서 숫자가 급증하다로 번역하지 않고 추세가 급증하다로 번역하였는데, ‘추세’라는 말 속에 ‘오르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ontinue*가 ‘계속하다’로 번역되지 않았지만, 문맥상 포함되어서 번역되었다고 할 수 있다.

C. stop/quit

BEGINNING 유형은 전체 47개 중에서 *stop/quit*은 4개(8%) 발견되었으며, 한국어 번역문에서 동사 유형으로만 번역되었으며, 다음 예문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36) a. We stop rolling and catch our breath and wipe the dripping snow from our faces. (TM, p.99)

b. 우리는 구르기를 멈추고 숨을 몰아쉬며 얼굴에 묻은 눈을 닦아 낸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p.148)

(37) a. I stopped renting. (TM, p.16)

b. 이제 렌트 인생도 끝났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p.41)

예문 (36)은 양상동사 *stop*이 한국어 번역문에서 동사 ‘멈추다’로 번역되었으나 목적어 *roll*은 ‘구르다’가 아닌 ‘구르기’로 명사화 시켜서 목적어 표지를 써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예문 (36)처럼 (37)의 *stop*을 타동사로 ‘이제 나도 렌트 인생을 끝냈다’로 번역할 수 있었으나, (37b)를 보면, *stop*은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로 번역되었다. 인간행위자 표현하는 방식⁸⁾에서 영어는 인간행위자를 부각시키는 언어유형에 속하고 한국어는 인간행위자를 억제하는 언어유형에 속한다(김은일·정영찬 2008). 예문 (37)의 경우도 동사의 변경과 더불어 일반주어가 억제되는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다.

또한, 위의 예문 (37)의 *stop*이 타동사로 번역 될지라도 ‘멈추다’와 ‘끝나다’는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다. 국어대사전(2005)을 보면 ‘멈추다’는 하던 짓이나 일을 잠시 그치다로 정의 되어 있으며 ‘끝나다’

8) Ikegami(1991)는 인간 행위자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언어유형-즉, 인간행위자를 부각(focus)시키는 언어유형과 인간행위자를 억제(suppress)하는 언어유형-이 있다고 주장한다.

There is a contrast between (1) a language which focuses on 'the human being (especially, one acting as agent)' and tends to give linguistic prominence to the notion and (2) a language which tends to suppress the notion of 'the human being (especially, one acting as agent),' even if such a being is involved in the event. (Ikegami 1991: 290)

는 일이 다 이루어지고 시간적·공간적으로 이어져 있던 것을 끊어지게 하다로 정의 되어있다. 이처럼 예문 (36)에서 *stop rolling*을 ‘구르기를 끝내다’로 번역하지 않고 ‘구르기를 멈추다’로 번역된 것처럼 잠시 멈추고 눈물을 닦은 후 다시 구르기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 반면 예문 (37)에서는 *stopped renting*을 ‘렌트 인생도 끝냈다’로 더 이상은 렌트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완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부호화의 관점에서 비교해보도록 하자. 아래 <그림1>에서 보듯이 한국어는 일시적인 의미의 ‘멈추다’와 완료의 의미가 있는 ‘끝내다’가 영어로는 하나의 단어 *stop*으로 부호화되었다.⁹⁾



<그림 1> stop의 부호화

*stop*의 경우와 같이 한국어가 과대부호화¹⁰⁾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할

9) 부호화 방식의 차이점에 관한 이해는 외국어 학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인간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를 이용하여 새로운 문제에 접근한다. 외국어 습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모국어에 관한 언어지식을 가지고서 새로운 목표언어(target language)에 접근한다. 모국어에 대한 언어지식이 목표언어를 습득할 때 긍정적으로 전이(transfer)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전이, 즉 간섭(interference)이 발생할 수도 있다(Brown 2000: 94-95). 이때 부호화 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간섭현상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다(cf. 김은일 1998).

10) 어떤 언어가 비교되는 다른 언어에 비해 더 많은 문법장치로 부호화되는 것을 과대부호화(over-code)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더 적은 문법장치로 부호화되는 것

때 문맥상황에 맞게 ‘멈추다’ 또는 ‘끝내다’ 로 번역하여야 한다.
반대로 ‘멈추다’ 또는 ‘끝내다’ 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구분 없이 *stop*으로 번역하면 된다.

(38) a. I thought I was going to have to quit skating. (Reader's Digest, p116)

b. 나는 스케이팅을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117)

예문 (38)에서 *skate*는 위의 (34b)처럼 한국어에서 ‘스케이트 하다’ 라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명사 ‘스케이트’ 로 번역되었다. 또한, 국어대사전(2005)에서 보면 ‘그만두다’ 는 하던 일을 그 정도에서, 하지 않고 그치다. 단념하다는 정의처럼 예문(38)의 문맥을 보면 단념하라는 의미를 지닌 ‘그만두다’ 로 번역되었다. 다음으로 TRYING 유형을 살펴보자.

3.2.3 TRYING 유형

영어 언어자료에서 발견된 TRYING 유형은 전체 160개 중에서 23개 (14.4%)가 발견되었으며, 그 중에서 *try*는 20개(87%)로 월등히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manage*는 3개(13%) 발견되었다.

TRYING 유형에서 발견 된 양상동사의 번역 유형을 정리한 것은 다음 <표6>과 같다.

을 과소부호화(under-code)되었다고 한다(Givón 1984: 39)

〈표6〉 TRYING 유형 동사의 번역 유형 및 빈도

TRYING 유형	번역 유형	빈도
try	동사	19(82.6%)
	생략	1(4.3%)
manage	부사	1(4.3%)
	생략	2(8.8%)
합계		23(100%)

TRYING 유형에서 양상동사 *try*는 한국어 번역문에서 동사 유형 19개(82.6%)와 생략 유형 1개(4.4%)로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났으며, *manage* 역시 부사 유형 1개(4.3%)와 생략 유형 2개(8.8%)로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이제 TRYING 유형에서 빈도가 월등히 높은 *try*부터 동사의 번역 유형에 따른 특징들을 예문과 함께 살펴보자.

A. try

TRYING 유형 23개 중에서 *try*는 영어 언어자료에서 20개(87%)로 월등히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한국어 번역문에서 동사 유형 19개(82.6%)와 생략 유형 1개(4.4%)로 두 가지 번역유형이 나타났으며, 다음 예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39) a. I tried to see time and seasons, my life passing in slow motion. (TM, p.85)

b. 시간과 계절, 내 삶이 천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애 썼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p.132)

(40) a. In the cab Anderson tried to buy a few precious seconds by grabbing another lever and throwing the train into reverse. (Reader's Digest, p.52)

b. 기관실에서 앤더슨은 귀중한 단 몇 초라도 벌기 위해 열차의 후진레버를 잡아당겼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53)

예문 (39)에서 양상동사 *try*는 한국어 번역시 연결어미 ‘-고’가 붙어 ‘-고 애쓰다’로 동사 유형으로 번역된 경우이며, 문맥상 노력의 의미를 지닌 것 같다. *try*는 영한사전¹¹⁾에서 보면 ‘노력하다’가 가장 대표적인 뜻이지만 *try* 20개의 예문 중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예문 (40)에서의 *try*는 생략유형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을 벌기 위해 잡아당겼다는 번역에서처럼 주어인 앤더슨이 가까스로 잡아당겼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아래 예문 (41)은 *try*가 동사 유형으로 번역되는 경우 ‘애쓰다’ 외의 번역 양상이다.

(41) a. Seconds later when the tumult subsided, Stuart tried to sit up, but bashed his head against something hard. (Reader's Digest, p10)

b. 몇 초 후 주위가 잠잠해졌을 때 스튜어트는 일어나려고 하다가 머리를 단단한 물체에 세계 부딪쳤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10)

위의 (41)예문에서 *try*는 연결어미 ‘-고’가 붙어 ‘-고 하다’로 번역

11) DONG-A'S Prime(2001:2540)에 정의를 정리해보면, 1. 노력하다, 해보다, 힘쓰다
2. 시도하다, 시험하다 3. 심문(심리)하다, (사람을)재판하다

되었는데 문맥상 노력하다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으며, 노력하다는 것은 목적을 다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애쓰다’와 교체 가능한 것 같다. 즉, (39b)의 ‘보려고 애썼다’를 ‘보려고 했다’로 교체가 가능하며, (41b)의 ‘일어나려고 하다’를 ‘일어나려고 애쓰다’로 바꾸어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다.

B. manage

TRYING 유형 중 전체 23개 중에서 *manage*는 3개(13%) 발견되었다. 위의 예문 (32)에서 *continue*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동사 ‘계속하다’가 아닌 ‘계속’인 부사 유형으로 번역된 경우와 같이, *manage* 역시 ‘가까스로’로 부사 유형으로 번역된 것 1개(4.3%)와 생략 유형 2개(8.8%)가 있었으며, 다음 예문을 통해 좀 더 살펴보자.

(42) a. Still, a group of local volunteers had managed to set up a camp. (Reader's Digest, p.118)

b. 하지만 그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캠프가 설치되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119)

(43) a. Although he had managed to pull her away from the front of the engine, she had not rolled down the bank. (Reader's Digest, p.54)

b. 아이가 기관차의 앞부분에 부딪치지 않게 잡아당기기는 했지만 아이는 제방 아래로 굴러 떨어지지 않았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55)

예문 (42)에서 양상동사 *manage*는 동사가 아닌 부사 ‘가까스로’로 품사 전환하여 번역하였으며, 예문(43)에서 *manage*의 목적어 *pull*은 ‘잡아당기기’로 명사화 되어 번역되었으나, *manage*는 번역되지 않은 생략 유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상동사 *manage*는 주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어떤 일을 이루다(이기동, 2008)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문 (43b)에서 주어인 아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잡아당긴 것으로 *manage*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제 DECIDING 유형에 대해 살펴보자.

3.2.4 DECIDING 유형

영어 언어자료에서 DECIDING 유형은 전체 160개 중에서 9개(5.6%)가 발견되었다. 그 중 *decide*는 8개(88.9%) *determine* 1개(11.1%)가 발견되었으며, 한국어 번역문에서 양상동사 *decide*는 전체 8개 중에서 동사 유형 4개(50%)와 생략 유형 4개(50%)로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났으며, *determine*은 동사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제 DECIDING 유형에서 빈도가 높은 *decide*부터 동사의 번역 유형을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A. *decide*

DECIDING 유형 9개 중에서 *decide*는 8개(88.9%)로 월등히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한국어 번역문에서 동사 유형과 생략 유형이 각각 4개씩 나타났으며, 다음 예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44) a. On an impulse, at age 45, she decided to fly to Vietnam.

(Reader's Digest, p42)

- b. 45세였던 노블은 베트남으로 떠나기로 불쑥 결심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41)

(45) a. When the professors learned that students who did not maintain a certain grade point average could lose their deferments and be drafted, they decided not to give any grades. (TM, p.111)

- b. 일정한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학생은 군 소집 연기 대상이 되지 못하여 징병될 거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교수들은 학생 전부에게 성적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p.164)

위의 두 예문은 양상동사 *decide*가 한국어 번역시 동사 유형으로 번역되는 경우인데 두 예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예문 (44)에서 *decide to fly*를 ‘떠나기로 결정하다’로 번역하지 않고 ‘결심하다’로 번역한 것은 문장의 주어인 노블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화자의 심적 상태에 대한 것은 ‘결정하다’로 번역된 것 같다. 반대로, 예문 (45)에서 양상동사 *decide*를 ‘결심하다’가 아닌 ‘결정하다’로 번역한 것은 문맥상 화자의 외적인 느낌 다른 사람과 의논해서 성적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결정하다’로 번역된 것 같다.

이제, 양상동사 *decide*가 한국어 번역시 생략되는 예를 살펴보자.

(46) a. After the driver unlocked the passenger door, I decided to hop in the back to avoid one of those awkward scenes

where you hem and haw over who sits where. (Reader's Digest, p125)

- b. 그가 운전석에 타고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을 때 나는 누가 어디에 앉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우물쭈물하는 것이 싫어서 뒷좌석에 앉으려 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125)

예문 (46)에서 *decide*가 ‘ 앉으려고 결정하다’ 나 ‘ 앉으려고 결심하다’ 로 번역되지 않고 ‘앉으려 했다’ 로 *decide*가 생략되어 번역되었다. 위의 예문 (44)과 (45)에서처럼 *decide*가 한국어 번역시 ‘결정’ 과 ‘결심’ 이라는 단어를 문장에 사용했을 시 문맥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이나 *decide*가 번역되지 않고 생략되는 경우는 (46b)의 ‘뒷좌석에 앉으려고 했다’ 처럼 결심자체가 어렵거나 결심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약화되고 사소한 일을 행할 때 사용되는 것 같다.

B. determine

한국어 언어자료에서 *determine*은 전체 8개 중에서 1개 발견 되었으며, 한국어 번역시 동사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해당하는 예문은 아래와 같다.

- (47) a. The other kids could even skate backward, and Dorothy was determined to learn how they did it. (Reader's Digest, p106)
- b. 스케이트를 타고 “뒤로 가는“ 아이들을 본 도로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꼭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107)

예문 (47)에서 양상동사 *determine*은 ‘결심하다’로 동사 유형으로 번역되었다. 다음으로 LIKING 유형에 대해 살펴보자.

3.2.5 LIKING 유형

영어 언어자료에서 LIKING 유형은 전체 160개 중에서 6개(3.75%)가 발견되었다. LIKING동사로는 *like*와 *love*가 있으며, 각각 5개(83.3%), 1개(16.7%) 발견되었으며, 한국어 번역문에서 모두 동사 유형으로 번역되었다.

A. like

LIKING 유형 전체 6개 중에서 *like*는 5개(83.3%)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번역문에서 동사 유형으로 ‘좋아하다’와 ‘즐거다’로 두 가지 경우로 번역되었으며,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48) a. Boys like to negotiate. (Reader's Digest, p.18)

b. 사내아이들은 협상하기를 좋아한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19)

(49) a. However, the storekeeper is a familiar sight at a trout pond in Ahtari, where he likes to fish. (Reader's Digest, p.84)

b. 그러나 애호테리에 있는 송어 양어장에서 그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는 이곳에서 낚시를 즐긴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85)

예문 (48)에서 양상동사 *like*는 ‘좋아하다’로 동사 유형으로 번역되고, 목적어 *negotiate*는 동사인 ‘협상하다’가 아닌 명사인 ‘협상하기’로 동사를 명사화 시켜 번역하였다. 그리고 예문 (49)의 경우 *like*는 ‘즐거다’로 동사 유형으로 번역되었으나, *fish*는 동사가 아닌 명사인 ‘낚시’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한국어에서 ‘낚시’라는 말이 그 자체가 명사로 있기 때문에 문맥상 동사가 아닌 명사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낚시를 좋아하다’가 아닌 ‘즐거다’로 번역된 이유를 국어대사전(2005)에서 살펴본 결과, 어떤 것을 취미를 붙여 사랑할 경우는 즐기다로 표현하며, 즐기어서 하고 싶거나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좋아하다 단어를 사용한다.

B. love

LIKING 유형 중에서 *love*는 전체 6개 중에서 1개(16.7%) 발견되었으며,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동사 유형으로 ‘사랑하다’가 아닌 ‘좋아하다’로 번역되었으며,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50) a. Most boys love to play rough, but it doesn't mean they're on the road to becoming roughnecks. (Reader's Digest, p.10)
- b. 대다수의 소년들은 거친 놀이를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폭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11)

예문 (50)에서 *love*는 영한사전의 대표적인 뜻인 ‘사랑하다’가 아닌 두 번째 뜻인 ‘좋아하다’로 동사 유형으로 번역되었으며, 목적어 *play*는 동사인 ‘놀다’가 아닌 명사인 ‘놀이’로 동사가 명사화되어 번역되었다. 위의 (48b)에서 *like*가 ‘좋아하다’로 번역 될 때 명사화 된 것

처럼 (50b)에서도 ‘좋아하다’로 번역 될 때는 명사화 되었다. 이를 통해 *like*나 *love*가 ‘좋아하다’로 번역 될 때는 뒤에 동사는 명사로 번역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Dixon의 분류에 나오지 않은 유형의 동사들을 살펴보자.

3.2.6 기타

앞에서는 Dixon(2005)의 양상동사의 분류를 바탕으로 각 동사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았으나, 이제 Dixon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동사들의 번역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A. remember

영어 언어자료에서 양상동사 *remember*은 전체 160개 중에서 3개 발견되었으며, 한국어 번역문에서 동사 유형으로 번역되었다. *remember*은 영한사전¹²⁾에서 보면 ‘기억하다’가 가장 대표적인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영한 병렬 자료 분석 결과 ‘기억하다’로 번역되는 것을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생각나다’와 ‘떠오르다’로 두 가지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remember*이 ‘생각나다’로 번역되는 예문을 살펴보자.

- (51) a. Peever remembered holding him in his arms. (Reader's Digest, p.48)

12) DONG-A'S Prime(2001:1989)에 정의를 정리해보면, 1. 생각해 내다, 상기하다 2.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고 -하다 3. -을 고맙게(쾌썸하게) 여기고 있다; -에게 선물(팁)을 주다 4. -을 위해 기도하다

- b. 시신을 자신의 팔에 안고 있던 일이 생각났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49)

예문 (51)에서 *remember*은 ‘생각나다’로 번역되고, *hold*는 동사 ‘안다’와 명사 ‘일’이 합쳐져서 ‘안고 있던 일’로 명사화하여 번역되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어 ‘생각나다’를 영어 언어자료에 *remember*과 *think*중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할지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둘의 차이점을 조사한 결과, 우선 *think*는 심사숙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더 자주 쓰이며, *remember*은 예문 (51)과 같이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관한 기억이 떠오를 때 쓰인다.

- (52) a. As the open cropland of Ostrobothnia flashed past, I remembered reading that the village of Tuuri has only 500 inhabitants. (Reader's Digest, p.74)
- b. 오스트로보트나이의 확 트인 경작지가 창밖으로 훑훑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나는 투리 마을의 주민이 불과 500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읽었던 사실을 떠올렸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75)

예문 (52)에서 *remember*은 ‘떠오르다’로 번역되고, *read*는 ‘안고 있던 일’처럼, 동사 ‘읽다’와 명사 ‘사실’을 합쳐 ‘읽었던 사실’로 명사화하여 번역하였다. ‘생각나다’와 ‘떠오르다’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교체 가능한지 궁금증이 생겨 국어대사전(2005)에서 살펴본 결과 ‘생각나다’는 생각이 떠오르다는 뜻으로 ‘안고 있던 일이 떠오르다’나 ‘읽었던 사실이 생각나다’로 교체 가능한 것 같다.

B. promise

영어 언어자료에서 *promise*는 전체 160개 중에서 2개 발견되었으며, 한국어 번역문에서 ‘-고 약속하다’로 동사 유형으로 번역되었다.

(53) a. Christina Noble promised to help Nga find a job, to help her get off the streets. (Reader's Digest, p44)

b. 노블은 소녀가 일자기를 얻어 거리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와 주겠다고 약속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45)

예문 (53)에서 양상 *promise*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연결어미 ‘-고’가 붙어 ‘-고 약속하다’로 동사 유형으로 번역되었다.

C. agree

*agree*는 영어 언어자료에서 2개 발견되었는데, 한국어 번역문에서 ‘동의하다’로 번역되지 않고 생략 유형으로 발견되었다.

(54) a. The provincial government agreed to pay for Brandon's care, travel costs and a small monthly allowance so Al and Marie could rent a furnished apartment and buy food. (Reader's Digest, p.22)

b. 주정부는 브랜든의 치료비, 여행경비 외에 앨 부부가 현지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23)

예문 (54)에서 양상동사 *agree*는 ‘동의하다’로 번역하지 않고 생략 유형으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문맥상 ‘지불하기로 했다’는 말에 ‘동

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D. ask

양상동사 *ask*는 ‘요청하다’로 번역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분석한 자료에서는 문맥상 요청의 의미는 내포되었지만 ‘요청하다’로 번역되지 않고 생략 유형으로 번역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1개의 예문을 발견되었다.

(55) a. He asked to see the hibiscus plant on the ledge behind him.

(TM, p.63)

b. 그는 등 뒤에 놓인 히비스커스 화분을 보여 달라고 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p.239)

위의 예문 (55)에서 양상동사 *ask*는 예상과 달리 ‘요청하다’로 번역되지 않고 생략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문맥상 ‘요청’의 의미가 암시되고 있다.

E. beg

영어 언어자료에서 *beg*은 1개 발견되었고, *beg*이 한국어 번역문에서 아래 예문과 같이 ‘애원하다’로 명사 유형으로 번역되었다.

(56) a. but, the child begged to be with his family. And having their boy home for even one day would be a special gift for Al and Marie. (Reader's Digest, p.16)

b. 브랜든이 가족과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계속 애원을 했고 단

하루라도 집에서 브랜든과 함께 보낸다는 것이 앨과 마리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았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17)

예문 (56)에서 양상동사 *beg*은 한국어 번역문에서 명사 ‘애원’ 이랑 ‘했다’ 라는 동사가 합쳐진 명사 유형으로 번역되었다.

F. vow

마지막으로 *vow*는 영어 언어자료에서 1개 발견되었으며, 한국어 번역문에서 ‘-고 맹세하다’ 로 번역되었다.

- (57) a. He vowed to survive as long as he could. (Reader's Digest, p14)
b.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아남겠다고 맹세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p.15)

예문 (57)에서 양상동사 *vow*는 한국어 번역문에서 연결어미 ‘-고’ 와 결합되어 ‘-고 맹세하다’ 로 동사 유형으로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3장에서는 양상동사의 한국어 번역 유형을 크게 네 가지-동사 유형, 명사 유형, 부사 유형, 생략 유형-로 나누어 보고, Dixon의 분류에 따라 각 동사들이 세부 번역 유형으로 봤을 때 , 양상동사가 동사 그자체로 번역되는 동사유형의 경우는 124개(77.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동사가 아닌 명사로 번역되는 명사유형의 경우는 9개(5.6%)로 나타났으며, 부사유형으로 나타난 경우는 4개(2.5%), 그리고 생략 유형으로 나타난 경우는 23개(14.4%)의 빈도를 보였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어 양상 동사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어떠한 번역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어 언어자료에서의 양상 동사 예문 160개를 가지고 한국어 언어자료에서 양상동사의 한국어 번역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동사 유형, 명사 유형, 부사 유형, 생략 유형으로 나누어 보고, Dixon에 의해 분류된 동사별로 어떠한 세부 번역유형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번역 유형으로 봤을 때, 양상동사가 동사 그자체로 번역되는 동사 유형의 경우는 124개(77.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동사가 아닌 명사로 번역되는 명사유형의 경우는 9개(5.6%)로 나타났으며, 부사유형으로 나타난 경우는 4개(2.5%), 그리고 생략 유형으로 나타난 경우는 23개(14.4%)의 빈도를 보였다.

양상동사의 분류에 따라 분석한 결과, WANTING 유형이 65개(40.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BEGINNING 유형은 47개(29.4%), TRYING 유형은 23개(14.4%), DECIDING동사는 9개(5.6%), LIKING동사는 6개(3.75%) 나타났으며, 기타 유형의 동사는 10개(6.25%)가 나타났다.

양상동사의 형식적인 분류가 많아 일반화하기 어려웠지만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세 가지를 발견하였다.

첫 번째는, 양상동사 *continue*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경우 동사인 ‘계속하다’가 아닌 부사 ‘계속’으로 번역되었으며, 한국어에서 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continue*가 ‘계속’이라는 부사로 옮겨지는 반면에 한국어에서 동사가 없는 경우 *continue*는 ‘계속하다’로 번역되었다.

두 번째로, 양상동사 *want*가 한국어 번역시 동사 유형으로 번역될 경우 연결어미 ‘-고’나 ‘-로’가 붙어 ‘-고 하다’로 번역되거나,

‘-로 작성하다’로 번역되었는데, 전자는 화자의 의지가 내포될 때 사용되었으며, 후자는 화자의 의지가 암시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양상동사 *need*는 목적어의 번역 유형의 차이뿐만 아니라, 문장에서 주어가 나타낼 경우는 *need*를 ‘해야 한다’로 번역하고, 문장에서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필요하다’로 번역되었다.

양상동사는 번역이 어려워 힘들어하는데 연구를 통해 영어 양상동사의 번역 유형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어 학습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을 것 같다.



병렬언어자료

- 공경희. 2010.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서울: 살림.
- Mitch, A. 1997. *Tuesdays with Morrie an Old Man, a Young Man, and Life's Greatest Lesson*. New York: A Division of Random House, Inc.
- Reader's Digest*. 2009. 서울: 두산동아.

참 고 문 헌

- 김은일. 1998. 영어구사력 향상을 위한 한영구조에 나타난 유생성 차이에 관한 비교 연구. 「영어교육연구」 9, 145~164.
- 김은일. 2010. 「부호화 체계와 번역」. 서울: 한국문화사.
- 김은일, 정영창. 2008. 한국어 ‘되다’ 구문의 영어번역문에 대한 기능 문법적 설명. 「언어과학」 15(3), 61~82.
-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 2005. 서울: 민중서림.
- 심지영. 2011.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begin과 start의 의미와 연어 비교. 「신영어영문학」. 49, 227~252.
- 이경숙. 2003. 「영한 번역에서의 품사전환 연구」. 석사 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이기동. 2008. 「영어동사의 문법」. 서울: 신아사.
- Brown, H. Douglas.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en.

- Dixon, R. M. W. 2005. *A Semantic Approach to English Grammar*. Oxford: Oxford Uni Press
- Foley, W. A. & R. D. Van Valin, Jr. 1985. Information Packaging in the Clause. In Shopen, T.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1: *Clause Structure*, 282~36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ed, A. F. *The Semantics of English Aspectual Complementation* (Synthese Language Library 8). Dordrecht: Reidel, 1979.
- Givón, T. 1976. Topic, Pronoun, and Grammar Agreement. In Li, C. N.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 Givón, T.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Vol. I & II.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김은일, 박기성, 채영희 (역). 2002. 「기능영문법 I & II」. 서울: 박이정)
- Ikegami, Y. 1991. 'Do-Language' and 'Become-Language': Two Contrasting Types Linguistic Representation. In Ikegami, Y. (ed.), *The Empire of Signs: Semiotic Essays on Japanese Culture*, 285~326. Amsterdam: John Benjamins.
- Prime English-Korean Dictionary*. 2001. 서울: 동아.
- Yamamoto, M. 1999. *Animacy and Reference: A Cognitive Approach to Corpus Linguistics* (Studies in Language Companion Series (46).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